

사 설

부처님을 맞이하는 마음

불교계가 봉축 준비에 분주하다.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이라는 구호 아래 부처님이 오신 의

왔다는 마음가지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다. 부처님 마음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새롭게 열린 진리의 세계, 참 생명의 세계에 동참하여 참다운 삶을 살게된 기쁨을 느낄 때 우리 참된 행복은 시작된다.

특히 우리 불자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기쁨의 춤사위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올해는 월드컵이라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잔치가 한국에서 열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으로 부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이 가장 바라실 일을 준비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아니, 우리 모두가 부처님으로 여기

비구니회관 원만 회향을

오는 5월4일 봉불식을 올리게 될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법흥사(法興寺)는 앞으로 7천여 한국비구니 스님들의 결집된 힘으로 우리사회의 참다운 종교 지평을 넓히며, 한국불교를 세계로 전파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성된 회관은 오랜 세월을 걸쳐 전국비구니스님들이 땅 한 평 사기, 한 방 짓기 식으로 원력이 모아져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전국비구니스님들의 모인 원력이 새롭게 수행력으로 깊이 더해 한국불교를 빛낼 선지식들이 많이 나오게 되길 기대한다.

비구니 스님들의 터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여타 불교문화원이나 포교원과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비구니 스님들은 교육이나 복지 포교 등 수행행 등 여러 면에서 승단 안에서 상대적 차별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수행과 복지사업, 생명존중이나 환경, 평화운동 등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면에서 그 성과는 높이 평가받아왔다. 비구니회관 건립은 그런 비구니 스님들의 힘을 한데 모아 보다 차원 높은 활동을 펴 나갔다는 서원의 결실인 것이다.

이처럼 간단치 않은 원력과 행보 속에 건립된 회관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회관 내부시설과 입주문 등 25억 여 원이 드는 마무리 불사의 자금조달이 막연하다는 점이다. 5월4일 봉불식을 치르면서도 낙성식을 미룰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비구니회관은 비구니 전문대학원 등 비구니 교육의 중심도량이자 포교 공간으로, 대사회적 복지 문화 공간으로, 좁은 교회의 장이 될 것이다. 마무리 불사에 비구니 스님은 물론 불자들이 힘을 모아 원만한 회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전국 비구니회관 5월4일 봉불식

오는 8월 개관...2천여 비구니사찰 총본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30여년 만의 숙원사업인 전국비구니회관 건립불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교육, 포교사업에 나선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스님)는 5월 4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전국비구니회관(法興寺) 만불전에서 봉불식을 갖는다. 한편, 내부시설 보완 등 오는 8월 개관 준비에 들어갔다. 조계종 원로 석주스님(원불사 조실)의 증명 아래 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법주로 봉행되는 이번 법회

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교구본사 주지스님, 비구니계 원로스님 등 사부대중 수천여명이 동참해 비구니 승단의 발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세계 비구니여성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작불사인 비구니회관 건립불사는 전국 7천여 비구니 스님들과 2천여 개에 이르는 비구니 사찰의 총본산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비구니승단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지 1천2백40평, 건평 2천5백

60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에 대법당(만불전)과 교육관, 대강당, 강의실, 불교문화실, 도서관, 탁아실, 체력단련실, 숙소, 방송실 등을 갖춘 비구니회관은 종합불교회관으로서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에게 대한 교육, 포교, 복지사업은 물론 청소년, 장애인, 지역민 등을 위한 사회복지 및 문화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조만간 비구니회관 운영 위원회'를 구성, 조계종 교육원과 협의해 비구니 전문대학원 설립을



7천여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교육, 포교를 위한 근본도량으로 등장한 자태를 드러낸 비구니회관전경.

추진하는 등 비구니 재교육 도량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은 "이번 봉불식을 계기로 일주문과 내부 시설 등 마무리 불사를 완료해 8월경 낙성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4면> 현재까지 103억여 원이 투입된 비구니회관 불사에는 아직 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사부대중의 지원이 절실하다. 02733-5467 김재경 기자



16일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된 태고종 제22대 총무원장 운산스님 취임법회에는 각계 지도자들 1천여명이 참석, 운산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고 태고종의 밝은 앞날을 기원했다.

태고종 운산 총무원장 취임법회

승풍진작 · 교육강화 · 재정자립 등 7과제 제시

한국불교 태고종은 16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제22대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취임법회를 전통진산의식으로 엄숙하게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운산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단 정체성확립과 승가공동체 실현 △승단의 기강확립과 승풍진작 △승가교육과 득도제도 개선 △종단의 재정안정과 재정자립의 확대 △조계종과의 사찰분규 종식 △포교활성화와 사회적 역할 증대 △포교와 의식개혁운동 등

7가지 중핵과제를 제시했다. 운산 스님은 "앞으로는 선교육 후속도 제도를 실시해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 승려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승려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와 중생에게 봉사할 수 있는 참다운 불교성직자를 배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조계종과의 사찰분규에 대해서는 두 종단이 명분과 실리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올해 안에 분규를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고종 21대 총무원장 혜초 스님의 이임식과 원불 자월 수종 스님의 부원장 취임식이 함께 열린 이날 법회에는 1천여명이 참석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대덕 사회부장 양산 스님)과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박문석 총무실장 대독), 이재서 한국종교협의회장이 각각 축하사조로 운산스님의 태고종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하고 태고종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경숙 기자

종의회의장에 진산 대정사

진각종, 사감원장엔 휴명 대정사 선출



진산 대정사, 휴명 대정사

명해 대전수립법임인당 주교, 사감원장에 휴명 대정사(전 종의회의장)를 각각 선출했다. 종의회의장에 선출된 진산 대정사는 89년 심인종·고 정교, 92년부터 9~11대 종의회 의원, 98년 제30대 사감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주 흥원심인당 주교 및 경주교구청장을 맡고 있다. 한편 진각종은 종의회 의장 선출에 앞서 이날 종인원 대강당에서 2002년도 스승총회를 개최해 성호 종사 등 제11대 종의회 의원 37명을 선출했다. 한명우 기자

Advertisement for 'Modern' magazine featuring a cartoon illustration of people carrying a large structure labeled 'Modern' and 'Positive Mind'.

Advertisement for 'Modern' magazine listing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Advertisement for 'Modern' magazine featuring a 'We accept reports' (케보받습니다) section with contact details.

승보종찰 승광사 임오년 삼월불사 및 가사불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승광사는 보조국사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목우가풍을 계승해 왔으며, 국제선원과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금번 삼월불사에서는 보조국사 중재 및 가사불사 입재와 보살계 수계 산림을 성대히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사부대중들의 수회 동참을 바라며 이 인연공덕으로 다 같이 복혜가 구족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Event schedule for the Buddhist activities, including dates, times, and participation fees for various events.